



힘내요 직장맘!
 “웃어요 직장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여노 새 지평을 열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개소

서울여노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에 있어 또 하나의 지평을 넓혔다.

올해 4월부터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 직장맘 지원센터는 작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시 서울여노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박원순 시장후보에게 제안하여 공약으로 채택된 사업이다.

이로서 서울여노는 고용평등상담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자활센터에 이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에 또 하나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이에 7월17일 오후3시 공간여성과일 교육장에서 개소식을 갖고 그 힘찬 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 서울시 의회 김기옥·한명희 의원,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정현백 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장,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등 많은 손님이 찾아와주었다. 또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문재인 상임고문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자리를 함께해 주었다.

황현숙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여성이 직장인으로 서만이 아닌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윈스톱 직장맘 노동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댄스동아리 ‘울랄라 시스터즈’의 축하공연은 개소식의 분위기를 살려주어 많은 이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정리 이부민>



인터뷰

1.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일과 함께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의 고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일·가족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황현숙 센터장>

2. 직장맘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이 잘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상담하면서 법과 현실의 차이를 절감했는데요. 직장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 밀착형 지원인데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 직장맘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일하는 모든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간 가족관계, 개인이 겪는 고충에 대한 종합 상담과 함께 노동권 및 모성권 확보를 위한 법적 지원 서비스와 분쟁 해결, 맞춤형 보육시설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종합상담실과 엄마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맘 카페’도 마련했어요. 점심시간 직장 근처나 퇴근 시간 집 근처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직장맘과 양육맘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가 멘토가 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직장맘”에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직장맘은 자칫 임금근로자만을 떠올리게 하지만 사실은 자영업자든, 경력단절 여성이든,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하지 않아도 일하려는 마음이 있는 모든 여성을 뜻합니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에만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경력단절 예방 정책의 빈자리를 센터가 메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리 신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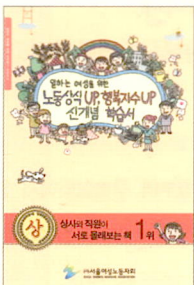
울림통

서울여성노동자회 본부

■ 윤혜연 회장, 유옥순 부회장 선출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위탁받아 황현숙 전 회장이 센터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4월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하였다. 새 임원으로는 윤혜연 회장, 유옥순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 권리찾기 안내서 4 발간



서울여노는 7/1 권리찾기 안내서 4 「일하는 여성을 위한 노동상식UP, 행복지수UP 신개념 학습서」를 발간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등 여성주간행사 참여



직장맘지원센터는 7/1 서울시, 7/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7/5 마포구 여성주간행사에 참여하여 부스를 설치하였다. 직장맘센터와 함께 하면 직장생활 달달하고나란 부제로 소망트리에 소원지달기, 달고나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이주여성 대상 과정 개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2012년 구로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직업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커피바리스타과정을 이주여성들에게 맞춰서 6월 7일부터 [커피바리스타와&브런치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커피를 생산하는 본고장에서 온 결혼이민여성들이 커피를 다루는 바리스타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게된다면 유리한점에 착안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매너,브런치요리 교육을 첨가하여 교육 후 취업시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신규자활근로사업단 '알뜰가게'출범



알뜰가게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우리 동네 이웃과 함께 녹색 세상을 만들어가는 본 센터의 신규자활근로사업단이다. 지난 6월 12일 참여주민과 실무자의 정성으로 개소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 날, 구로구 이성구청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앞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지립 기반과 주민자치의 터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터에서 날아온 소식



난 일하는 엄마가 좋아

김현정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미래로 베이비시터

저는 십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아 왔습니다. 십년이라는 시간동안 전업 주부로 결혼 생활을 하였고 어려운 순간과 쉬운 순간을 번갈아 가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식구들 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고 아이한테도 안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아 용기를 내고 우울증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 원래의 성격을 찾게 되고 취업을 준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들이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일을 하였으면 좋겠어. 나는 일 하는 엄마가 좋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 속에는 “취업하자”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찾아갔습니다.

“청소부라도 좋으니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성과 결혼하기전에 일한 것을 토대로 어떤 직종이 맞

는지 상담하고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기로 결정하고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미래로”라는 베이비시터 신입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속에 있던 이름과 나 자신을 찾았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늘 용기 있게 살수 있다고 다짐을 매일 합니다.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더욱더 성실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베이비시터가 되고 싶고 또한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도 되고 싶고 기회가 주어 진다면 조리사도 하고 싶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취업을 생각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여성 여러분,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자신감을 찾고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 김현정님은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베이비시터 과정을 수료하고 <아이미래>에 취업하셨습니다.

“부당해고에 맞서다!”

김영숙(가명)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양육을 한 뒤 마흔이 훨씬 넘은 나이에 다시 입사한 곳은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업무에 꼭 필요한 교육도 시켜주지 않았고 결국 사비로 교육을 받았다. 게다가 업무상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도입했음에도 이사가 화를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거짓보고를 하는 상사,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대표와의 관계에서 나는 좌절하였다. 결국 해고통지를 받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원직복직이 됐

지만 이어지는 부당전직. 통근거리가 2시간이 넘는, 아직 공사중인 건물에 책상도 없이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수개월을 공사장에서 버텼지만 결국 이직을 하는 것으로 회사생활을 마쳤다.

이전의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일을 했었기에 나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나이가 많고 주변의 부조리한 일에 그냥 보아넘기지 못한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구성원을 계속 바꾸는 대표의 이상한 행동은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다.

부당해고와 부당전직의 과정에서 심신이 지쳐 싸움을 그만두고 싶을 때 서울노동여성자회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결국 싸움의 과정이 힘든 것을 알면서도 달리기를 계속할 수 있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금, 든든한 엄마의 모습으로 ‘서울여성노동자회’를 떠올린다.

※ 김영숙(가명)님은 4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사소한 외모와 상냥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로서 새 직장에서도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알뜰가게 개소식

2012. 6. 11 (화) PM: 3시 장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17-



▲ 알뜰가게 오픈 멤버 인사모습. 왼쪽부터 김흥희, 조정애, 김금선, 장성희(사업단대표), 정다운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 알뜰가게에 근무하는 김흥희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기 전 나는 무엇을 했나 아프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디로 가야하나 방향을 잡지 못하던 중 구로살터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염려하며 크린청소 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주로 학교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리고 있는 내 자신이 서러워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고비도 있었지만 저의 마음속

엔 현실엔 적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마음 또한 생겼습니다.

나 자신도 “쓰임 받아진다”는 행복

김흥희 /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 알뜰가게 사업단



그래서 마음을 다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고 더욱 열심히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뜰가게라는 사업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터는 과반 수가 넘는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운전하는 손길이 부족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알뜰가게 부서에 저는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뜰가게는 여러 곳에서 물건을 기증받아 새롭게 단장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때론 깨끗한 옷, 더러운 옷도 세상의 모든 것이 모이는 듯 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정집, 살터에서 기증을 받아 작업장에 수거해 놓습니다. 작업장은 바쁜 손길이 되어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정애누님, 금선동상이 세탁을 하고 다림질을 예쁘게 하여 품목별로 정리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매장에 내보낼 준비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도착하면 깔끔하고 사교성이 좋으신 우리 대표님이 바쁘게 물건을 보기 좋게 디

스플레이하십니다. 시집, 장가 보낼 준비를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알뜰가게는 재활용품이라 할지라고 제각기의 주인을 만나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듯 어려운 가운데 만나 귀한 인연을 만들고 서로 쓰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간미 넘치는 공간으로서 내 자신도 쓰임 받아진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알뜰가게는 특별한 물건이 아닌 사용하다가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 또는 자녀들의 것, 생활용품 등등을 기증받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기증되는 구제품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 유용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저희 알뜰매장에선 고마움의 표현으로 기증하시는 분들께 물품교환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기관에 들어와서 시간 때우기에 급급했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아이디어를 내고 조금이라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내 자신의 변화를 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다짐해봅니다. “낙오되지 않는 구성원이 되자”라고요.

우리 알뜰가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각자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알뜰가게 사업단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단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엔 정다운 팀장님의 진두지휘가 있기 때문이지요. 호도같이 딱딱하고 스펀지같이 부드러운 팀장님은 팀원들을 잘 이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식구들과 함께 2년 안에 아름다운 가게를 능가하는 알뜰가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고 힘내세요.

※ 김흥희님은 2011년 4월부터 구로살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알뜰가게는 2012년 2월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슈

<희망식당 하루> 2호점 '춘삼월' 방문기

오늘은 특별한 식당을 소개하고자 한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요리하는 식당, 수익금 모두를 해고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기부하는 식당. 일주일에 하루만 여는 '희망식당 하루'가 그 곳이다.

1호점은 상도역 1번출구 근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있고, 2호점은 상수역 4번출구 '춘삼월'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데 우리는 2호점 상수역으로 발길을 잡았다. 2호점 희망식당은 상수역 4번 출구에 위치해 있는 '춘삼월'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12시~ 오후 10시까지이다.

셰프는 콜택기타의 해고자 임재춘님이다.

주중에 계속되는 투쟁과 식당운영을 하기란 쉽지 않음



것이다. 그런데다 전문요리사가 아니다. 맛있을까가 의문이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식당이여도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점심시간에 맞춰 갔는데 식당 분위기도 좋고(카페 분위기) 제법 사람이 꽉 찼다. 이날은 사회적기업 '오요리'의 셰프님이 함께 하여 음식이 제공됐는데 메뉴는 3가지였다. '마파두부, 냉짬뽕, 나시고랭(인도네시아 볶음밥)'

우리는 냉짬뽕과 나시고랭을 먹었다. 생각보다 맛있다.

주방은 오픈되어 있었는데 다들 위생복장을 갖춰 입고 조리를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서빙도 친절하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식당이다! 무엇보다 가격이 착하지 않은가?

밥값은 오천원이다. 딱 오천원. 카드도 된다.

1호점과는 달리 2호점은 해고노동자와 아무관계도 없다. 춘삼월 주방장과 블로거 '오후에' 씨가 가게주인을 만나 설득해 지금의 춘삼월을 월요일마다 희망식당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 곳에서는 해고당한 사람끼리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정리하고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외로움을 알 수 있다. 손님들은 그들의 취지를 좋게 평가한다.

홍대에서 약속이 있다면 이곳으로 가자. 대신 희망식당에서는 밥을 먹고 난 뒤 SNS나 블로그에 '해고는 나쁘다'라는 글을 남겨야 하는 숙제가 있다. 그곳에 가면 생각보다 해고노동자는 우울하지 않아 보인다. 가까운 곳에서 밥을 먹고 웃으며 그들을 지지할 수 있는 곳. 희망식당 하루다.

<정리 이주혜>



여우와 함께 하며

이 꼭지는 서울여노의 자문위원 및 이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또는 여노와 함께 하며 느끼는 단상을 나누는 란입니다.



김진 변호사

변호사 일을 시작한지 1년이 조금 넘어가던 어느 날, 평소 존경을 넘어 어려워하던 선배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 가끔 상담을 해오던 여성노동단체가 있는데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기에도 벅차 별 것도 아닌 서면하나 쓰는데 밤을 새워야 했던 왕초보 신참에게 '야간' 상담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그 선배에게 뭘 배운다는 생각에 냉큼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소송사건에서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 '법률사무소의 상담'과 조언과 지원. 지지가 목적인 '여성노동자회의 상담'이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는데 몇 년, 상담에서 끝나는 사례 '관리'가 아니라 일터를 바꾸고 희망을 만드는 일을 고민하는 법을 배우는데 다시 몇 년...배움에 더딘 나에게 여노를 찾는 길은 언제나 고단하였고 문을 닫고 내려서면 생각처럼 하지 못한 내가 부끄러웠다. 그렇게 열 두 번의 해를 넘기고 『최일숙 · 김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수요일 변호사 상담』이라는 소박한 문패를 달았던 상담실이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상담일자가 잡히는 대규모(?)의 변호사 모듬으로 바뀌기까지, 제법 거들먹거리며 선배 흥재를 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많이 두렵고 부끄럽다. 하지만 누가 내쫓기 전까지는 안 나가려고 버티는 중이다.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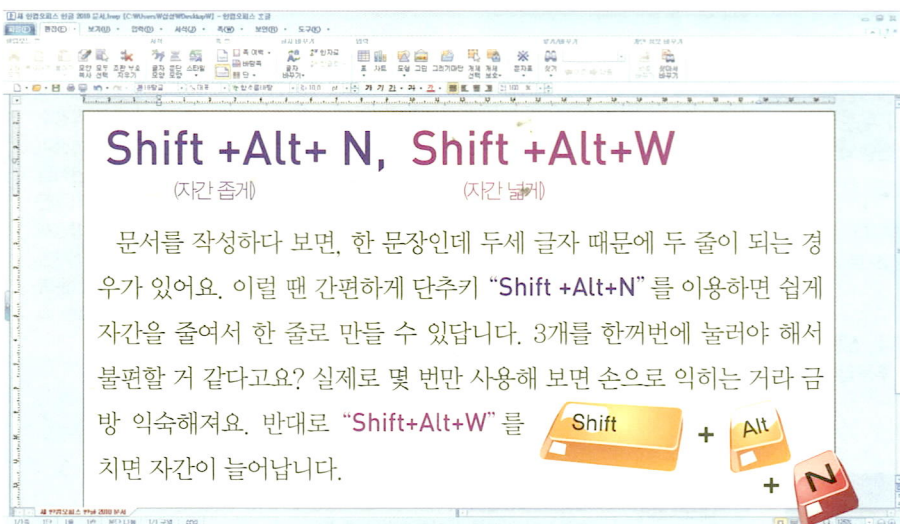
※ 김진변호사는 서울여노 이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선정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100인', 시사저널 선정 '미래의 한국의 힘 영리더 27인'에 선정되기도 한 능력자이지만 드라마를 줄줄이 꿰는 드라마광이기도 하다.

알약

이 꼭지는 즐겁고 편리한 컴퓨터 사용팁을 알려드리는 란입니다.

초간단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 사용팁 2

신문용



여우의 만화



만화 이승민

작가 소개
이승민양은 '구로살터 안강숙팀장'의 차녀로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있으며 서울여노에 대한 애정으로 이 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소개합니다



다시 돌아온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리 강윤신>

♣ 쉬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신문용] 총 2년간 쉬었는데, 1년은 외국에 있었고, 1년은 집에서 쉬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했어요. 2년 동안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읽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요리가 취미가 될 정도로 요리에 관심도 많이 생겼어요. 물론 혼자 사는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요. 하하.

[문인구] 웃가게를 운영했어요. 센터를 다닐 때는 작은아이가 어려서 걱정했는데, 웃가게를 운영하니 아이가 오고싶을 때 언제든지 올수 있고 아이들 엄마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자유롭게 사랑방처럼 운영해서 좋았지요

♣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가요?

[신문용]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면서, 사회에 대한 감수성을 살리고, 관심분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문인구] 재취업에 적응하기위해 애쓰다보니 아직 저의 목표, 비전을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저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 신문용님은 2008~9년 구로살터에서 팀장으로 일했으며 문인구님은 2007년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팀 직업상담사로 일했었습니다. 모두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우의 선배 만나기

시골 버스정류장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윤경 /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실장

이윤경 선배는



부산태생으로 27살까지 부산에서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맥킨토시 편집 디자인 일을 했었다. 97년 서울로 올라와 서울 을지로에서 3년 반을 일했다.(이 때 여도가 거래처여서 활동가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 때 책 읽고 담 소 나누는 소모임 '푸른창'을 같이 했었다.) 수능을 다시 본다고 1년 반 동안 공부하다가 잘 안됐고 한의원을 거쳐 삶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 2003년 2월 공동체 홀닥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1시간 과속업무인계를 받았다. 이후 2005년 말쯤에 실장이 되었다.

자활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사회복지가 전공도 아니었기 때문에 용어가 생소했다. 사람과의 관계도 고민이 많았고..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후에 실장이 되고 업무보고 야간엔 사회복지공부를 하며 힘들었지만 다~ 잘 지나갔다.

지금은 초창기와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덜 힘들고 즐겁게 일할 곳을 만들고 싶은데 어렵다. 함께 한 시간동안 사람에 대한

부담감, 미안함, 무거움이 있다.

조직에서 일할 때의 개인 신념이 있나?

조직적인 입장(여노)에선 운영철학은 없다. 대신 사람들이 직접 느끼고 즐기는 경험의 장이길 바란다.

자활에서는 일단 활동가들이 어디가서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지 않고 활동적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팀원들의 긍정적인 효과와 에너지를 믿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이든 활동가든지 밖에 나가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조직적으로 봤을 때 만족도는?

개인적으로는 10점 만점에 7점? 빈틈이 많았고 놓치는 것도 많았다. 이를테면 서류(행정적)의 허점과 실무자와의 소통, 고민 나눔 등이 그러하지 못했다.

관장님이라 잘 맞는가?

잘 맞는다. 성향은 다르게 보여지지만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치명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윤관장님은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아직도 배울 게 많은 분이다. 특히, 일의 추진력은 정말 뛰어나다.

자활이란 뭐라고 생각하나?

시골버스 정류장. 질문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 잠시 갈아타기 위한 정류장이다. 물론 타고 갈 버스를 바꿔 탈 수도 있다.

정류장이긴 하지만 서울버스정류장은 아니다. 시골 버스정류장이어야 한다.

본인의 자활도 됐나?

굉장히 많은 걸 얻었다. 다른 곳에서는 어려웠을거라 확신한다. 사람, 생각, 기대..등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인정받았다.

후배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돈을 선택하기보다 인생을 보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해볼 만한 일인지, 할 수 있을지를 봐야한다.

돈에 끌려다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일을 하다보면 돈은 따라온다. 돈보고 일을 하면 엉망으로 꼬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판단,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옳다라는 100% 확신이 옳지 않을 수 있다. 개인의 일정의 신념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나. 가슴이 뛰는 일을 하라.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일이 힘들지라도 가슴이 뛰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

〈정리 이주혜〉

※ 이주혜님은 2010년부터 구로삶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활동가를 만나 인터뷰를 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다녀와서”

강윤신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설계사

한국여성재단 '짧은 여행, 긴 호흡'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여노 실무자 9명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가게 되었다.

앙코르와트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앙코르와트의 멋진 돌조각상도 웅장한 사원의 규모도 아니었다. [다르마]라는 사상이었다.

자기의 자리에서 충실히 하다보면 다음 생애에 더 좋은 위치에 태어나게 된다는 사상이었다. 앙코르와트의 웅

장함은 다르마라는 사상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지어질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질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에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행간다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다르마란 사상이 나에게 크게 울 줄을 몰랐다. 나의 일을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길꺼라는 믿음이 천년전의 캄보디아 사람도, 현대의 나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앙코르와트의 신화들이 좋았던 것은 우

리나라 설화와 같이 나쁜 놈은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 권선징악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우리와 정서가 비슷해서 정겨움을 느꼈다. 아직 낯가에 관광지에서 아이들이 간절히 외치던 "원달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몇 십년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옛것을 잊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할 것” 이것이 내가 이번여행에서 얻은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

든 이 말을 잊지말고 행하였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 강윤신님은 2005년 11월부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화장품에 대한 남다른 지식으로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울여노 부회장이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신 유옥순 선배님이 7월 1일 서울여린이대 공원에서 있었던 서울시 여성주간 행사에서 '서울시 여성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었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꼭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

회원동정

• 왕인순회원이 주혜명교수와 함께 재능기부로 ACT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은 일하는여성아카데미의 주관으로 6월2,3,8,9일(총20시간)에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이제운 회원의 장녀 박지민씨가 6월 29일 결혼을 했습니다. 큰 딸의 결혼을 치룬 이제운 회원과 신부 박지민씨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박주영 노무사가 5월 26일 인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선남선녀로 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는 후문입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후원계좌 안내

우리는행 115-318425-13-203 예금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후원명단

강보은 강은숙 강인영 강현진 공유식 구본권 김경희 김도남 김금자 김 린 김미례 김미리 김미정 김민선 김민주 김상열 김성혜 김수경 김숙자 김신연 김영철 김용신 김용애 김정숙 김지미 김지영 김진희 김하린 김행자 김현숙 김혜진 남을순 노현주 민현정 박가현 박경숙 박경조 박선경 박선영 박옥엽 박은국 박정화 박지영 박진영 방송희 배금이 배옥병 변경미 봉만수 서선자 서혜경 성화주 송기진 신미연 신민정 신은순 심상연 안정연 여연심 연정림 오성화 오세정 오정민 유미영 유시주 유현심 윤선웅 윤선주 윤혜숙 이경영 이국희 이규진 이기모 이기홍 이명선 이미영 이박미 이봉화 이소영 이송란 이영미 이유정 이인순 이인재 이재숙 이제운 이한본 임내옥 장서연 장영선 장진호 정명희 정지선 조수진 조은영 조자영 조지훈 조춘례 최경희 최선희 최성호 최승만 최원호 최이숙 최현주 최혜순 한민영 한소복 한영규 허목화 허세영 현세경 황옥진 선택미록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우소리
8호를
내보내며

• 어려웠습니다. 글쓰는 것도 힘들고 마감 맞추는 것도 늦었는데요. ... 이주혜
어찌어찌 잘~해서 소식지 발행을 하네요.후련해요.
• 쉽고도 어려운 여우소리 편집의 세계. ... 이부민
• 바쁜 중에도 기사를 써준 모든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신문용
• 예전 선배님들의 여우소리도 읽어봤는데 꽤 재미있어요. ... 강윤신
그분들의 의지를 이어갔으면 좋겠네요.